





# Great Company

## (Jeremiah 31:7-9)

“Behold, I am bringing them from the north country,  
And I will gather them from the remote parts of the earth, Among them the blind and the lame,  
The woman with child and she who is in labor with child, together; A great company,  
they shall return here.”

Did you know that Jeremiah 31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pters in the whole Bible? It not only contains the principal Old Testament passage on the new covenant, “Behold,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v. 31), but describes God’s work in making a great company! It begins with words like, “declares the Lord” (v. 1), “Thus says the Lord” (v. 2), “The Lord appeared saying” (v. 3), and “I will build you” (v. 4). Everything about this chapter comes straight from the mouth of God. He promises that He will be the God of all the families of Israel and they will be His people (v. 1). He will give His people comfort, rest, and eternal love (vv. 3-4). He will build them up and they will go up to Zion (v. 6). This is God’s great working. He’s going to make a big, great company that He will care for and make happy. God Himself is going to gather His people.

Today’s Bible verses address the Northern Kingdom, Israel, “For thus says the Lord, Sing aloud with gladness for Jacob, And shout among the chief of the nations; Proclaim, give praise and say, O Lord, save Your people, The remnant of Israel. Behold, I am bringing them from the north country, And I will gather them from the remote parts of the earth, Among them the blind and the lame, The woman with child and she who is in labor with child, together; A great company, they shall return here. With weeping they shall come, And by supplication I will lead them; I will make them walk by streams of

waters, On a straight path in which they shall not stumble; For I am a father to Israel, And Ephraim is My firstborn” (vv. 7-9). Amen! Jeremiah prophesied this wonderful scene. Even though Israel had fallen captive to the Assyrians, God would restore them. He will gather them from the remote parts of the earth. Distance is not a problem for God, nor are human predicaments. Humans can’t imagine such power and grace.

You’ll recall that Jeroboam, the leader of Israel, took God’s people away from Jerusalem when the kingdom divided. Judah stayed in Jerusalem and Israel went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Jeroboam didn’t want his people to go to Jerusalem to worship because he was afraid that their hearts would turn to Rehoboam, king of Judah. So, he made two golden calves for them to worship. He cleverly placed one golden calf in Bethel, which was on the road to Jerusalem, and the other calf in the northernmost part of his kingdom, Dan. He also made priests from among the people who were not of the sons of Levi. He ignored God’s way, “Arise and let us go up to Zion”, for rightful worship (v. 6). Whoever has power, like Jeroboam, wants to gather people themselves and make a great company. They want to retain power, fame, and wealth. They want to establish a political stronghold. They want their great company to be an inheritance for their own descendants. But look what happens? The Pharaoh in Egypt is gone. The king of Assyria is gone. Alexander the Great is gone. Julius Caesar is gone. Hitler is gone. Stalin is gone.

They all liked making a great company, but not one stands.

“The kings of the earth did not believe, Nor did any of the inhabitants of the world, That the adversary and the enemy, Could enter the gates of Jerusalem” (Lam. 4:12). The King of kings has made His own company, which is eternal. Only He uses the kings of this world for His purpose. Before His people went to Zion, now they come to Him for worship. God uses people as His instrument to fulfill His way. That’s all. Our God watches over His people. He was with the Israelites for 40 years in the desert. His love never stopping. He’s gathering His people into a great company with His wonderful love and care. The time is coming when young people, strong people, healthy people, and perfect people won’t respond to God because they think they are great. God still listens to people, to the lying, lame, and pregnant women. With them He makes His own great company and He leads them. Isn’t that a wonderful story?

Jesus said,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These are the people of the great company, not the strong people. Everyone who is weak, the weakest people, become God’s children. Not by human effort but by righteousness, the grace of the cross. Listen to these biblical words, “After these things I looked, and behold, a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and all tribes and peoples and tongues,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white

robes, and palm branches were in their hands; and they cry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Salvation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Rev. 7:9-10). Amen! Do you believe this is going to happen? Is God really going to make this great company? It’s happening in Revelation.

The people will come weeping, “With all weeping they shall come”. God’s great company approaches Him in tears. Why? Because they are sinners. They ask for His leading. God said He was the father of Israel. What a wonderful blessing. He responds to the sinner, not the prideful, but to the one who confesses his sins and asks for forgiveness in the name of Jesus. They ask by the grace of God because He is their Father. The whole chapter of Jeremiah 31 says that God is the one who declared, proclaimed, and promised to make a great company under a new covenant. John the Baptist asked Jesus if He was the one. Jesus said to His disciples go and tell John that the blind see, the lame walk, lepers are healed, the dead are resurrected, and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of God, the gospel, is preached to the poor. That is the only way God makes a great company. He seeks sinners. That’s His purpose. Are you one of God’s great company? Are you humble? Are you a guilty sinner who feels blind, lame, leprous, and dead because of sin? Ask the Lord. He will be your Father by the grace of God.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He will respond to you. ■



김성관 목사

## 큰 무리 (렘 31:7~9)

“보라 내가 그들을 복원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족발미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오되...”

###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

여러분은 예레미야 31장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단지 새 언약에 대한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만 아니라, 큰 무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렘 31:31).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2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3절).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4절). 이렇듯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난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1절).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위로와 안식과 영원한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3-4절).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온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6절).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무리를 만드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행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

오늘 성경 말씀은 북왕국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가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복원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족발미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오되 올 때 올 것이니 그들이 나의 인도를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예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7-9절). 아멘! 예레미야는 이 놀라운 광경을 예언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먼 땅 끝에서부터 불러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러나 사람의 처한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 여로보암의 악한 행동

여러분은 왕국이 두 나라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시켰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만, 이스라엘은 예브라임의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혹시나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드리게 하였습니다. 교묘하게 한 금송아지는 예루살렘 도상에 위치한 벰엘에, 그리고 나머지 금송아지는 왕국의 최북단인 단 지방에 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뽑아 제사장으로 지정하였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올바른 제사를 위해서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자”(6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습니다. 여로보암 같이 힘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 큰 무리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힘과 명성과 부를 얻기를 원하며 그러기 위해 정치적 입지를 세워줍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커다란 집단을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사라였습니다. 앗수르의 왕도 사라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콜리우시지,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까지 모두 사라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큰 무리를 만들기 원했지만 어느 누구도 욕망을 성취할 만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 하나님의 큰 무리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에 4:12).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큰 무리를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오직 그 뿐만이 세상의 열왕들을 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십니다. 과거에 그의 백성들은 시온으로 올라갔었으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때 전파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살피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40년 동안 사막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의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사랑과 돌봄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큰 무리로 만드십니다. 젊은이들, 강한 자들,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소위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병들어 누운 자들, 앓은병이들, 잉태한 여인들에게 귀 기울이시며 그들을 큰 무리로 만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 예수 안의 큰 무리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결코 강한 자들이 아닌 이 사람들을 큰 무리를 이루는 그의 백성입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을 입고 온 천하를 돌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콘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예 7:9-10). 아멘! 여러분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큰 무리를 이루실까요? 이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회개하는 큰 무리들

사람들은 옳게 나올 것입니다. “모든 우는 자들이 다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큰 무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눈 그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용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구하는 죄인들에게 용담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힘입어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아래에서 큰 무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선포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오실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며, 앓은병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이 선포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죄로 인해 영혼의 눈이 멀었고, 무릎이 펴지지 않으며, 문둥병에 걸렸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느끼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용담하실 것입니다. ■



나라별 독립 첫 열매-몽골어집회,

가자! 추수를 향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 몽골제국시

대, 즉 친나라 때 교황은 몽골의 황제로부터 기독교를 전해 달라는 한통의 편지를 받는다. 자기들이 기독교를 믿었고 있다고,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서 그 편지를 받고도 무시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몽골제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후 몽골은 티벳교를 받아들여 온 국가가 불교국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몽골을 볼 때라도 안타깝게 한다. 그 때 전도했다면 이들이 말 다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복음을 함께 전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대와 동일한 요청을 받고 있다. 한국에 몽골인이 1만5천명 있다. 그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선교적 요청이 있다. 만약 이 기회를 한국의 성도들이 외면한다면? 정말 선교적 사명에 정신이 번쩍 든다.

주를 향한/ 교회에 오기 위해 지체들은 피곤과 아르바이트의 유혹과 싸워야한다. 때문 동대문과 가고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교회로 온다. 수개월 안 보인던 지체가 오기도 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려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보내주시신 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미어온다. 그들 중 누구도 교회에 와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아니, 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23시간 걸려서 오는 그들은 충원교회에서 머무는 것을 불편한 듯, 보름을 빨간천 사람의 기쁨처럼 그들의 마음엔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다. 몽골어로 헤어질 때 하는 말이 ‘바이트레’이다. 만나서 반갑다고 할 때도 ‘바이트레’라고 한다. ‘바이트’, 이것은 기쁨이란 말이다. 정말 그들의 마음엔 기쁨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보름을 말로 예수의 영이 인도하신다는 기쁨을 언어로 가장 잘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민족인 것이다.

실검공부/ 몽골지체들은 10개반으로 나뉘어 반별로 선생님과 리더를 포함한 성경을 배운다. 지금은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다. 10가지 넘어서 시작되는데 10시 50분까지 진행된다. 교실이 부족하여 두 개 교실에서 진행하느라 분주한바다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들이 모여 있어 기쁘다. 그리고 몽골지체들은 매주 70명이나 오는 데서 교사 한 명이 5명에서 15명까지를 담당한다. 헌신된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몽골어가 부족하여 마음같이 잘 설명이 가르쳐지지 못하여 정말 안타깝다. 몽골영혼을 살리기 위해 몽골어에 투자할 믿음의 용사가 필요하다.

집회/ 집회는 11시에 교육관 507호에서 시작한다. 리더들이 나와 찬양을 10분간 인도한다. 한국선생님들이 몽골어찬양을 같이 배워서 부른다. 집회는 몽골말 화상과 부회장이 교대로 사회를 보며 모든 말은 몽골어로 한다. 설교는 몽골말 지도인 민방목 사도장교가 한다. 기도대원은 통역자와 함께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통역하여 직접 몽골어로 설교를 하고 있다. 설교자와 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 몽골대에서는 실집회를 하는 리더들이 있다. 이런 리더 한 명, 한 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할 수 없는 믿음의 전도자들이다. 헌금절차에서는 본통에는 이름이 좀 생소하여 불편할지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호환하실까, 마치 군번같은 무명장사처럼, 교적번호도 없었지만 이들은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보화를 쌓아가고 있다. 갈릴과 여호수아처럼 ‘이 산지를 내게주소서’ 하는 기도로 몽골복음화를 위한 자들은 이미 믿음의 거인이 되어가고 있다.

4부예배/ 본당에 가면 통역기를 켜고 있는 사람 중에 한국인인지 몽골인인지 잘 분간 안 가는 사람들이 있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좋아한다. 왜냐하면 사진에 배포되는 설교원고를 가지고 미리 공부하고 마음에 준비한 한 두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해도 쉽고 이충삼충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다.

주중성경공부/ 성수동에서는 한국의 구역예배와 같이 성경공부모임이 있다. 전도사님과 함께 사울에 사는 리더들이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는. 매주 월요일 밤 8시에 진행된다. 거기에는 은혜와 양육과 감사의 시간이 있다. 삶의 정착에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영혼의 배아기가 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를 깊이 알고자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사울지역 몽골인들의 복음화와 부흥의 역사를 기도한다.

민족복음화를 향해/ 지난 4년간 충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았고 통역으로, 부지각에서 섬겼던 밋다 스타 부부가 올 6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나아가지 못하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나아간 것처럼 이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 그들 앞에 평한 몽골초원이 놓여있다. 그동안 충원교회 몽골어집회에서 갖고 담은 복음의 첫 열매들이다. 임파뉴엘의 기도를 요청한다. 몽골에 도도히 흐르는 불을 바라보다 260만 몽골영혼을 향해, 이제 첫 발걸음을 호든과 우상의 강을 위에 힘껏 내밀는 것이다. ‘요단을 정복한 하나님, 홍해를 정복한 하나님! 밋다 스타 부부와 함께 하소서’ 하는 기도를 교회에 부각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종, 언약의 자손으로 서기 위해. ‘주여, 몽골영혼들을 구원하소서’

## 나만 전할 수 없어요!

주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동행해 주세요...

늘 부족하여 다른 사람이 전도왕이라든가 교회학교에서 전도상을 받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은 작아진다. 왜냐하면 나는 전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전하보다 귀하라고 하시기에 용기내어 적어본다. 경도에서 태어나서 세 살되던 해에 한 국을 본 후였고, 30년 전 젊어 었 살 되던 해에 영음이 두렵게 언 언곳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동그랗게 파 놓은 것을 모르고 밟았더니 미리만 남기고 빠져가는데 것을 세 살 위인 언니가 머리카락을 잡고 건져내어 살아냈다. 그 후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었다. 그 언니가 참 고마워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충원교회 사신자 초청잔치에 초대받은 했다. 언니는 또 어머니셨가 딸만 네다 다섯째 여섯째 아들 둘을 얻으셨다. 그것도 복음을 드러 얻은 아들이라든가 한사코 믿지 않았다고 하시던 언니. 새벽마다 언니 기도하던 남편의 기도도 지금은 집사님이 되시고 다섯 딸과 아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처가 식구를 모두 구원시켰다며 남소리치는 남편.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이 글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전하고 싶다.

요즘에는 수요일마다 구역장 공부를 마치고 구 목사님의 시편 찬양을 듣고 싶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나사렛 홀로 한한다. 전도대의 8구 장들을 돕기 위해서다. 이제는 고마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리라 다짐한다. 그래서 전도대 훈련을 받게 된다.

목사님의 실제적인 전도와 실습을 통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있다. 차 안이나 주머니 속에, 가방 속에 전도지가 항상 들어 있어야 한다며 한 힌다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주마다 숙제를 내 주신다. 일 주일에 열명에게 전하도 보라고, 지학철이나 비스를 타고 다닐 때에는 좌우로 두 분씩 꼭 복음을 전하라고. 이 건에는 대대하지 못해서 전하지 못한 복음. 주님은 얼마나 사후에 하셨을까? 이제라도 기도한다. 자연스레 가장 속에서 전도지가 나오도록 전하고 그들에게 할 말을 전히 하도록 주시라고 성령님에 간구한다. 같이 교육받고 있는 전도대원들도 참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행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4월 월례회의때는 노방공도를 하기로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기도도 준비했다. 전도회 화상지와 전도지를 한 묶음 가지고 나갔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회원들을 보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기뻐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벤치에 앉고 있는 사람, 뱀장령 들어가는 사람, 자에서 내리는 사람들에서 서로 갖가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더욱이 순한한 지 한 달만에 모유를 먹이아 함에도 불구하고 혐조하던 자매를 볼 때, 분명 전도회가 부흥화되고 믿는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바르바라라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나의 생활은 슬픔과 고통의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부터 내 삶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는 물음 올릴 때가 많아요. 충원교회에 나가서 20년 동안 못만든 것을 만났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

났어요. 새로운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성탄절, 새해를 받았을 때 자주 많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두 번째 두 기뻐된 일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었어요. 몽골어 집회에 80명의 교수들이 같이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부활절날 준비한 연극을 보고 선생님이 같이 기뻐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 감사드려요. 부활절 며칠 전에 부활을 믿는 친구가 딸이랑 함께 학교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기도 좀 부탁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날 친구 딸이 아무 사전 연락도 없이 학교에 왔을 때 부활을 믿는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어요.”

바르바라의 아버지는 영화배우셨고 많은 유배들을 양생한 몽골영화회의 7가정이었다. 지금 자매는 전국학생들에게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몽골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를 보면 막달과 마리아의 헌신을 발견하게 된다. 복음의 행기는 봄의 철쭉보다도 정감있고 생명적이다.

박연자(집사, 13교구)



## 충동원 전도주일을 앞두고

##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의 전도

이재욱(고등부)

**전도**...전도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어렸을 때는 전도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었다. 솔직히 그때 나에게서 믿음이란 건 찾아보기 힘들었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는 나의 모습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성장한 지금의 나, 정말 친한 친구 하나 전도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믿음이 성장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노력하는 나이지만 정말 골가래를 얻은 하나 구하지 못하는 내 모습, 그때는 쉬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든지.

예전에는 그렇게 쉬웠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교회가자는 말 한마디 하기 두렵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한 친구들을 전도할 때,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기란 정말 힘들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항상 무시당하고 광신도, 심지어는 미친놈 취급을 당한다. 그럴 때 나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며 무능력함을 불평할 때도 있다. 가끔은 '어렸을 때 많이 전도할 걸' 하며 후회도 한다.

지금의 나는 형식적인 전도는 하지 않는다. 나만의 전도 방법을 고집한다. 생각이 바뀐 후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를 전하는데 급급했던 과거의 모습이 나에게겐 없다. 내가 생각하는 전도 방법, 그런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선하고 모범되게 생활하려고 한다. 가장 쉽게 전도할 수 있는 학교, 그 곳에서의 내 모습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아니,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이다.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극히 작은 신앙에도 상당한 반응을 보인다. 목사가 될가나, 광신도나, 독실한 크리스찬이냐는 등의 말을 듣기도 한다. 다른 모습도 그렇지만 특히 발명기 전에 드리는 기도에 그런 반응을 보인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아~ 교회 다니는구나!'라며 말한다. 가깝게 종교를 접해보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친구들은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갖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다. 예수가 누구냐, 년 교회를 왜 다니냐, 시간 아깝지 않냐, 헌금은 왜 내냐 등등의 질문을 한다. 난 그 질문을 기다린다. 그제나 나의 전도 방법이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이해시키려한다면 정말 전도하기 쉽다. 먼저 그들의 호기심을 유발해서 질문을 하도록 만들고 그 때부터 질문에 답해주며 내 방법으로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답해주면서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전도는 형식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전도는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성사시키기도 힘들다. 물론, 계획적인 전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생활에서 나오는 신앙일 것이다.

전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개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믿는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모습,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가식일 수도 있는 나의 모습.

하지만 그런 신의 가치. 그런 모습이 믿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 전도하기 원한다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히 알릴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성실하게 나타내야 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모습까지도.

곧 다가올 충동원 전도주일, 그 날 하루만의 행사가 아닌 계속되는 행사, 형식적이지 않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 앤드류머리의

## '그리스도의 기도학교예선'을 읽고

정성민 (고등부 교사)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하나를 수 있고 그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만약에 이러한 질문이 나에게서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에게서의 사람은 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리식게만 보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이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나의 기도생활을 돌이켜 보면 매우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나의 기도생활을 보면 형식적이고 반복적이다. 그 기도생활의 유익과 기도생활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흔히 "믿음이 좋다", "영광이 있다"라는 표현은 대부분 기도 생활과 연관지어 말할 때가 많다. 나도 대표기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고 영성이 있다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영성 있는 사람, 기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식적인 것이 믿음의 깊이와 비례하는 줄 착각했다. 그러나 믿음은 참으로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꼭 지식이 높아야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한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을 때, 그 외침을 통해 예수님은 소경이

원하는 바를 아시고 치유하려 하셨지만,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전에 소경에게 물으셨다. "메수께서 일리 가라 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건을 통하여 느낀 것은 우리들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데도,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로 우리의 주님은 기대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 분명히 기도는 내 자신의 필요를 더 잘 알도록 해준다.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게을러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분명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성경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믿음의 걸림을 의식하게 되어, 정말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는 결국 그 믿음의 진실성을 기도를 통하여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크리스천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기도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믿음을 포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천의 '특권'이었다.

박근남



박근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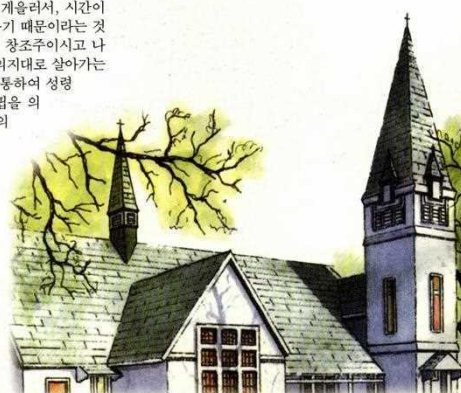


박근남

문은 아이디어제공 : minj74@jangminn.com

## 충동원의 고등부 컴퓨터 선교부는 교

사 1명과 18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동원의 고등부를 열고 널리 선교 및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컴퓨터 선교부는 현재 고등부 커뮤니티를 통하여 고등부 내의 친목 및 정보의 교환을 돕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 고등부원들이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컴퓨터 선교부는 매주일 고등부 집회 및 분반공부가 끝난 12시30분에 만나서 맛있는 간식 및 친교를 한 후 기도하여 회의를 시작한다. 어제는 신성 소그룹이라 많은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매주 보다 나은 정보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항상 기도와 회의를 한다. 컴퓨터 선교부는 보다 활동 영역을 넓혀 다른 교회와 음매이자를 방문하여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 구축 및 각 인티기독교 및 자살사이트 등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 컴퓨터 선교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나쁜 도구로도 이용되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선한 도구로 이용하여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데 힘쓰고자 한다.





# 2001 중헌체육대회

## 2001 중헌체육대회

지난 5월 1일 수도전기공고 운동장에서는 중헌체육대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중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남녀노소, 외국인 할 것 없이 화합을 위해 많은 땅을 흘렸다. 빨강·파랑·노랑·초록, 4색의 옷으로 갈아입은 성도들의 모습은 보기만해도 풍요로웠고, 그들의 흥겨운 축제의 모습 속에서는 작은 천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날의 명장면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 DX퀴즈  
"언제나 진리만을 선택합니다."  
1등을 하신 권사님의 환호!

군령의 굴리기 ▷  
"세계의 복음화는  
내 손 안에..."  
천국일꾼으로 자라나는  
중헌의 어린이



△ 400M 계주  
"내가 달음질 하기를  
향방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고전 9:26)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다함께 달려  
갑니다.

▽ 바람잡는 특공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  
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  
날마다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됩시다.



▽ 줄다리기  
"평안의 대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영차!



## 와 보라

김 운 섭 (집사, 초등부 교사)

오월의 훈풍 타고 이뤄진 작은 천국  
따가운 햇빛 가려 구경나는 구름장막  
수많은 눈동자 속에 그대 얼굴 담아본다.

지상에서 영원으로 물고 뜬 우리 예수  
줄아라 내 살붙이 닮아서만 정겨워라  
그 너의 십리 앞에서 햇무리로 피는 목시.

흥건히 젖어버린 등줄기 제지려고  
일등도 뛰어온다 물쳐도 달려온다  
저 하얀 연어들마다 분향차야 피다인단나.

원색의 옷을바다 일렁이는 저 파도  
사색기(四色旗) 돛을 달아 갈릴리로 모여라  
불라라 승리의 노래 앞만 보고 지나구나.

믿음 소망 사랑 중성 색깔마라 나팔불면  
우렁찬 저 함성에 무너지는 이 세상  
예수가 이기었노라 천국인진 중헌 축제.

이 시대 굶주린 자 와 보라 그 누구나  
이고 진 죄의 무게에 와서 내려놓고  
십자가 닦아 논 그 길 친구아 함께 가자.

▽ 예배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시라"(시 84:11-12)  
대회장이신 김성관 목사님의 설교





## 성경암송대회

조우빈 (유년부 1학년)

지난 4월 15일 부활주일예에 유년부에서는 성경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20절까지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되지않아 암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일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날 외워지는 말씀이 있어서 조금 실이 나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짜증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저에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커서 목사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암송했습니다.

저는 최우수상을 받게되어 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암송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그런가 우빈이의 우빈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빈이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빈이가 모든 친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우빈이가 아니요 오직 우빈이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이번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이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성경말씀을 열심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 찬양대 수련회를 마치고

공영빈 (유년부 3학년)



저는 유아때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유년부에 올라와서도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던 중 찬양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찬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했다는 것을 알게 된,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저를 오래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셔서 저의 죄를 사해주셨지요. 또 성경 말씀에서는 저를 죄에서 구하시고 영생 미네 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기쁘고 깨끗한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시고 천국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세요. 아멘.



## 십자가 인플레

박 경 배 (소년부 교사)

저는 5부 예배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느끼며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구제되었고, 이 죄인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소멸해 버리는 상징과 언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 모호한 문제를 놓고 크게 논란을 벌여왔자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비록 그러한 문제에 관해 모른다고 해서 심판의 날에 책망을 받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다. ~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불멸요한 개념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진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라"(요 8:32).

"내가 길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이제야 조금은 느낄 것 같습니다. 지난 날 교회를 전전공중하며 불멸요한 개념의 설교를 접하고, 설교시간마다 서당에서도 들을 수 있는 도덕을 논하며, 인간의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철학과 다름없는 비본질적 교훈과, 설교 때마다 제시되는 삶의 이정표 등에 하루하루 지내면서도 토대신앙인 제가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가져야만 했던 것은 이제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의주의 시대에 걸맞은 달콤한 복음에 익숙해 있던 제가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였지만 그분을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그리스도를 가뭇게 대하고 그분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한번도 그분을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다"(오스왈드 클렘버스).

이 죄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알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디다.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습디다. 들으면 들을수록 놀음이 납니다. 예수님은 제게 날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경께서는 같은 내용의 십자가 설교지만 매번 다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십니다. 같은 십자가 사건인데 말이죠. 제게는 십자가가 제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엔 결코 인플레이션 있을 수 없습니다

## 진리의 샘

### 전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1)

하나님께서 변치않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수고하여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9). 사실 이러한 명령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달롭고 험난 것인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고생과 수고 뒤에 흙으로 즉, 먼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부귀와 명예,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열망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 그런데 그도 결국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노에 무릎 꿇고 앉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에 대해 '해 아래 세 것이 없나니'라며 그 헛됨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도 오래 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후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사 40:6-7). 이사야의 선언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얼마나 비웃는 말입니까! 세상의 헛됨을 얼마나 정확하게 찌르는 말입니까! 그리고 인생에 맞서는 수고를 주시고, 미로로 돌아가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보다 잠시 못하였느니라"(마 6: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추구할 마음을 갖곤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직접 누리러서 못하십니까? 그러나 머리 돌 곳조차 없이 청빈한 삶인 하나님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세속의 추구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고도 믿을 수 없는 그것 또한 얼마나 귀중한 믿음입니까!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헛됨을 경험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선명한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도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계속)

(김동현 목사·출판국 지도)

##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이니



### 사랑, 그 놀라움

인토 스처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월요일 당직을 한 탓인지 무척 부담되는 아침을 맞았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교회 체육대회로 구역식구들 점심을 준비하느라 한창 부산스러웠다. 엄마는 늘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 오늘을 위해 몇 주 전부터 찬합을 사러 날때면 시장까지 갔다오셨다. 엄마가 사온 찬합이 나는 어찌나 무겁고 부담스러워 보이던지...

여러가지 마음의 부담을 안고 중천체육대회를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엄마는 내 도시락이라며 넉넉하게 담은 찰밥과 나물이나 든 도시락을 내밀었다. 순간 나는 눈물이 울컥 날 것 같았다.

엄마는 늘 나에게 물물나는 사랑을 주신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집에 오면 꼭 밥을 새로 지어서 내 친구들에게까지 엄마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도 김밥을 정성껏 싸서 내 손에 들려주었다. 엄마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어릴 적부터 새벽마다 무릎 꿇으시는 엄마를 보며 컸다. 엄마는 늘 아이같은 해맑은 얼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다.

"성령아! 하나님아! ...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랄지 않나?"

엄마는 내가 디자인 공부로 시작했을 때에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면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음을 잘 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다. 엄마처럼 ...

(양영연)



